시공 막론한 하나님의 자기 택배

(시편 87:1~7)

1.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4.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시공 막론한 하나님의 자기 택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시공 막론한 하나님의 자기 택배'

배달민족이 배달의 천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잔디밭에서 놀다가 자장면 시켜먹는 장면은 꽤 익숙한 풍경입니다. 저는 지난여름에 더위를 피해 경포해변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경포해변이 좋은 점은 모래사장에 연이어서 소나무 숲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배달부가 중국집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명함을 주기에 받아서 집사람에게 자장면을 먹어보자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사람이 길거리에서 먹는 것 같다고 반대했기에 포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배달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경포해변에서 공사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자장면을 배달시켜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달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스파게티를 이렇게 시켜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달과 비슷한 것으로 택배가 있습니다. 택배는 집에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있는 자리에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해주시는 원조 택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당신 자신을 배달해주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도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당신을 배달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인 판단 생각 소원 계획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배달하십니다. 삶의 현장이 바닷가이든 한강의 고수부지든 공사현장이든 시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치 자장면 배달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체성을 배달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성이 배달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배달받습니다.

이것이 선민에게 주어진 특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문방식이 있습니다. 이 주문방식을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주체성을 배달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은총과 특권을 허락 받는 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자장면 배달은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 배달의 포인트도 이 '어디든지'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갑니다. 자장면은 언제든지 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주체성을 배달해주십니다. 다만 특별한 주문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주문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체성은 배달될 수가 없습니다.

본 시의 배경은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재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BC.605년의 여호야긴 왕 때부터 남 왕국의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략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다름 아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타민족의 방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재건에 대한 필요성이 흔들릴 수 있었고, 성전존재의 의미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는 얼마든지 많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와 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이렇게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이제 돌아와서 성전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숱한 방해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방해꾼들을 막으시고 억제시켜서 성전재건의 여정을 평탄케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인이 오늘의 시를 노래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시의 규모가 전 세계적입니다. 선민들은 성전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세월을 지내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결코 선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대제국 애굽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서울에 성전을 세운다면 그것이 중국의 시진핑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일본의 아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내리시기를 바라시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은총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선민들은 포로생활을 하고 나서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포착할 수 있었고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포로생활 뒤에 재건되는 성전에 덧붙이거나 개정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성전은 선민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만민을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성전은 만민을 위한 것이었으나 선민들이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선민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민족들과 수십 년을 함께 사는 동안에 타 민족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 시대에 비하자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신으로 여겨서 하나님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의 틀이 넓어져서 성전이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발전적 단계로 향상되었던 것인데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 주문방식이 1~3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본래의 복지의 한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선민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시온의 문이 1절에 나온 성산과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체성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체성이 내려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화물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전이든 어디든 중간 허브를 거쳐서 옵니다. 여러 지방의 화물이 한 곳에 집결했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 주체성의 허브입니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만 선민들의 거처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민이 이스라엘 북쪽의 단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방식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부를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이 되심을 믿으며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단 지역에 살던 선민이 사업을 하다 돈 문제가 생겼다면 마음에서는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전의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돈이 있어야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비록 사업이 안 되어서 돈 문제가 발생했지만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문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심을 믿고, 돈으로 만족하려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서 다시 태어난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성전에 집결되었던 하나님의 주체성은 단 지역에 살고 있는 선민 한 사람에게까지 배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이 임한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사업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과 소원을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BC.605년경에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사자 굴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 왔으니 바벨론의 왕에게 잘 보여야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을 성전을 통해 죽였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이역만리 머나먼 곳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주체성을 배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졌을 때에 그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하셨습니다.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에 집어넣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체성을 배달하시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을 부르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졌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만이 궁극적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문하자 그 주체성은 풀무불에까지 배달되어 왔습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났다'라는 것은 곧 '시온에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는 말은 애굽과 바벨론이 나와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의 동포들이야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의 정권이 우리 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포로생활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자 선민을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성전에 대한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재건될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은 바벨론까지도 배달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로 지구 끝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으로 해외직구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타이레놀 같은 약을 미국에서 직구로 사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항상 주문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은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주문방식의 집결지로 정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듯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담겼음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대상들의 이름을 붙잡는 곳입니다. 자녀를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서 자녀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러한 나를 죽이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제단은 바라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을 붙잡고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보내는 것이 주문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배달되는데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두로든 심지어 구스(에티오피아)에까지도 하나님의 주체성은 배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

나님의 주체성을 배달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본문은 교회의 세계성과 교회의 우주성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는 곧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배달받는 사람들 전체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문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마음은 운명적으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가 있다고 여겼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을 얻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문하는 주문방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중국이나 일본에 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났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허브가 곧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배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체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삶에 대한 상황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해결방책을 스스로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돈 건강 자식 직장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체성은 죽어야만 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A라는 길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주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더라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기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주체성이 사업장에 배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문해야 합니다. 오늘 자장면 시켜서 먹었다고 내일 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교과서에까지 넣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육체로 인해서 생기는 문화적 차이나 나라와 민족의 차이조차 십자가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배달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하나님의 주체성이 배달됨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서 행복하고,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